

BASF, PBT 8만톤 플랜트 건설

말레이와 합작투자 추진 ... 북미 Amino Resin 플랜트도 계획

BASF가 말레이시아 Kuantan에 세계적인 규모의 PBT(Polybutylene Terephthalate) 합작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전의 단독건설에서 합작건설로 전환한 것으로 BASF는 GE Plastics과 50대50 합작으로 건설한 독일 Schwarzheide 소재 PBT 8만톤 프로젝트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파트너 기업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관계자에 따르면 Ticona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icona는 DSM과 합작으로 네덜란드 Emmen에 PBT 6만톤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유럽의 수요둔화로 프로젝트가 중단됐다.

Kuantan 소재 PBT 플랜트는 아시아 최대규모를 자랑하며, 근처 Butanediol 10만톤 플랜트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을 예정으로 Butanediol 플랜트는 BASF 및 Petronas이 60대40 합작으로 건설한 것이다. 또 BP의 Kuantan 소재 PTA(Purified Terphthalic Acid) 67만7000톤 플랜트로부터 PTA를 공급받게 된다.

한편, BASF는 2004년 말까지 미시건주 Wyandotte 플랜트를 Low-Formaldehyde Amino Resin 브랜드 제품인 Luwipal 생산라인으로 전환해 북미 코팅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BASF 최초의 북미 Amino Resin 플랜트로 생산능력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BASF는 완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확장공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Chemical Journal 2004/01/29>